



건강 상담실

문 : 간염 예방은 어떻게 하나 ?

답 : 간염은 A 형, B 형, 비A 비B 형의 3 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중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것은 B 형 간염 입니다.

B 형 간염에 감염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간경화나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B 형 간염은 B 형 간염 바이러스가 보균자나 환자의 혈액을 수혈할때나 이들이 사용하던 주사침, 한방침, 면도기, 세면도구, 식기등을 매개로 우리몸에 들어왔을때 감염되며 심지어는 여름에 극성을 부리는 모기도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예방법은 간염검사를 받은후 그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간염 환자나 보균자의 혈액 수혈을 피하고 환자가 사용하던 일상 용구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 : 피부에 반점이 있는데 혹시 AIDS가 아닐까요 ?

답 : AIDS 증상은 대개 뚜렷하지 않지만 무증상성 보균자들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열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며 임파선이 붓는다면 한번쯤 AIDS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에 자색반점이 생길수도 있으나 반점이 있다고 해서 꼭 AIDS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IDS 는 혈액이나 정액을 통하여 주로 감염되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이 없었다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고민이 되신다면 검사를 받아 보는것이 고민 해소의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AIDS 에 관한 상담이나 검사를 받으신분의 비밀은 절대 보장하여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 심장병 검사가 증상이 없는 어린이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답 : 심장병은 선천성인것과 후천성인것으로 나뉘는데 어린이의 심장병은 대개 전자에 속하고 성인의 심장병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생 돌연사(突然死)의 약 80%가 심장계 이상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심전도 검사를 집단검진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때 부터 심장 검사를 받게 하고 이상이 있는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불행한 사태는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병이던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특히 심장병은 어린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하며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상자 모두가 증상을 느끼게 되는것이 아니라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어린이에게도 정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받게함이 타당합니다.

(조사연구부 자료제공)